꼴레쥬 드 프랑스 소장 한국 고서의 현황과 활용방안

A Study on Status and Utilization of Korean Rare Books in Collège de France

이 혜 은(Hyeeun Lee)*
이 희 재(Heejae Lee)**

목 차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한국 고서의 소장 경위와 보존 상황
3. 꼴레쥬 드 프랑스 소장본의 성격과 특징
3.1 주제별 분석
3.2 판종별 분석
3.3 시기별 분석
4. 꼴레쥬 드 프랑스의 모리스 꾸랑 소장본
5. 꼴레쥬 드 프랑스 소장본의 활용방안
6. 결 론

초 록

이 연구는 그 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꼴레쥬 드 프랑스에 소장된 한국고서를 실사(實事)하여 소장본의 규모와 전래경위, 자료적 특징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꼴레쥬 드 프랑스 도서관에 한국고서가 유입된 역사적 배경과 과정을 조사하였으며, 서지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대상으로 주제별・판종별・시기별로 분석하였다. 특히 구한말 한국고서의 현황과 프랑스 내 한국고서 소재파악의 중요한 참고문헌인『한국서지(*Bibliographie Coréenne*)』를 저술한 모리스 꾸랑(Maurice Courant, 1865-1935) 개인 소장본과 꼴레쥬 드 프랑스 소장본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또한 이들 자료에 대한 서지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동활용의 방안을 모색하여, 본 연구가 앞으로 국외소재 한국 전적문화재의 발굴과 조사에 일조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outline the history and importance of the Korean rare books in Collège de France. With this purpose in mind,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the process of how these books came to Collège de France were studied through cataloguing the list, and then analyzing them by subject, printing type, and timeline. We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vate collections of Maurice Courant(1865-1935) and the Korean rare books held in Collège de France. The *Bibliographie Coréenne* written by Maurice Courant is the most important reference book for studying the publication of the late Joseon dynasty and finding the whereabouts of the Korean books in France. Also, we tried to figure out the best way to implement and make use of a bibliographic database, and contribute to the exploration and study of Korean Cultural Heritage scattered outside Korea.

키워드: 꼴레쥬 드 프랑스, 고서, 고문헌, 모리스 꾸랑, 한국서지
Collège de France, Rare Book, Maurice Courant, BibliographieCoréenne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고서전문원(helee@mail.nl.go.kr)
**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hee0612@sookmyung.ac.kr)
논문접수일자: 2011년 10월 14일 최초심사일자: 2011년 10월 17일 게재확정일자: 2011년 11월 27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4): 235-251, 2011. 〔http://dx.doi.org/10.4275/KSLIS.2011.45.4.235〕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유럽지역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고서는 우리나라와 문화교류의 역사가 깊은 중국이나 일본 등에 비교하면 그 양이 많은 것은 아니나 1953년의 조사에 의하면 당시 극동 컬렉션을 소장한 기관이 영국・프랑스・네덜란드・독일 등 4개국에만도 30개 기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럽 소재 한국고서의 분포도 광범할 것으로 추정된다(Ceadel 1953).

그 동안 유럽에 소장된 한국고서의 현황조사와 연구는 가장 많은 자료가 소장된 프랑스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자료적 특징에 대해서도 매우 포괄적으로 연구되어 왔다(박병선 1985; 이희재 1988; 이희재 1994a; 박상국 2003a; 박상국 2003b; 이진명 2003; 이희재 2009). 이들 연구를 통하여 프랑스 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국립 동양언어와 문화학교(INALCO; Institut Nationale des Langues et Civilisation Orientales), 기메박물관(Musée National des Arts Asiatiques-Guimet) 등에 소장된 자료들에 대한 소장경위와 현황에 대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프랑스 내 한국고서 소장기관 중 꼴레쥬 드 프랑스(Collège de France)의 한국고서는 25종이 중국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다(이희재 2009).

최근 문화재반환 등의 문제가 큰 이슈로 대두되면서 국외소재 한국문화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문화재가 어느 기관에 어떠한 형태로 소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자료가 전래된 경위와 상세한 서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문화재의 공개를 억제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여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자료의 접근 자체가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그 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꼴레쥬 드 프랑스에 소장된 한국고서를 실사(實事)하여 소장본의 규모와 전래경위, 자료적 특징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하여 국외소재 한국문화재의 기초조사에 일조하고자 함은 물론 자료의 공동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꼴레쥬 드 프랑스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꼴레쥬 드 프랑스 도서관에 한국고서가 유입된 역사적 배경과 과정을 조사하였다.

둘째, 꼴레쥬 드 프랑스 도서관 한국고서 53종 421책에 대한 실물조사를 실시하여 서지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대상으로 주제별, 판종별, 시기별로 분석하여 자료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셋째, 꼴레쥬 드 프랑스 소장 자료 중 모리스 꾸랑의 장서를 조사・확인하였다.

넷째, 앞으로 국내외에서 꼴레쥬 드 프랑스의 한국고서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2. 한국 고서의 소장 경위와 보존 상황

꼴레쥬 드 프랑스는 1530년에 설립된 고등교육 연구기관이다. 르네상스에 관심이 많았던 프랑수와 1세(François I, 1494-1547)는 이탈리아를 방문한 후 당시 소르본느대학에서 가르치지 않던 히브리어, 고대 그리스어, 수학 등을 교육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던 끝에 인문주의 학자 기욤 뷔데(Guillaume Budé, 1467-1540)의 권유에 따라 꼴레쥬 드 프랑스를 설립하였다. 설립 초기에는 '꼴레쥬 르와이얄(Collège Royal, 왕립학교)', '꼴레쥬 엥뻬리알(Collège Impérial, 황실학교)'로 그리고 1870년부터는 현재의 명칭인 '꼴레쥬 드 프랑스(Collège de France)'로 부르게 되었다.[1)]

꼴레쥬 드 프랑스는 학위수여 제도가 없고 등록의 절차없이 자유롭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며 당대 최고의 석학을 교수로 임명하여 수준높은 강의를 개설하는 대학으로도 유명하다.

또한 연구의 기반이 되는 도서관은 전통적으로 각 분야별 최고의 장서를 수집하여 운영되고 있다. 장서형성의 기반에는 꼴레쥬 드 프랑스 교수들의 기증도 상당하여 도서관장서의 수준을 높이는데 일조하였다. 도서관은 일반도서관(La Bibliothèque Générale)과 동양학도서관(Les Bibliothèque d'Orient) 및 사회인류학도서관(La Bibliothèque d'Anthropologie sociale)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동양학도서관은 이집트(Institut dÉgyptologie), 극동(Instituts dExtrême-Orient), 고대 중동(Institut du Proche-Orient Anciens), 비잔틴(Institut dÉtudes Byzantines), 아랍, 터키 그리고 이슬람(Institut dÉtudes Arabes, Turques et Islamiques) 등의 지역별 연구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극동지역 도서관에는 인도・티벳・중국・한국・일본 컬렉션이 속해 있다. 현재 장서는 약 650,000책이다.

현존하는 프랑스 내 한국고서의 대다수는 꼴렝 드 쁠랑시(Collin de Plancy), 아놀드 비씨에르(Arnold Vissière), 보베(Jean Beauvais), 바라(Varat) 그리고 모리스 꾸랑(Maurice Courant) 등의 장서가를 통하여 구성된 것이다. 특히, 이들 자료가 프랑스 내 기관으로의 이관된 내용을 보면 우선 비씨에르(Vissière)의 장서는 동양어학교 도서관(L.O.V.)에 소장되고 쁠랑시(Plancy)의 장서는 프랑스 국립도서관과 기메(Guimet) 박물관 및 미술과 고고학 도서관에 소장되었으며, 가벨렌츠의 장서(Coll. von der Gabelentz)는 라이프치히(Leipzig)대학도서관에 61책이 이관되었으나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분실되었다고 한다. 보베(Beauvais)의 장서도 동양어학교 도서관으로 이관되었으며 꾸랑(Courant)의 장서는 꼴레쥬 드 프랑스에서 소장하게 되었다(이희재 1994a). 또한 꼴레쥬 드 프랑스 소속 교수들과 프랑스 및 외국기관의 기증, 그리고 1972년에 소르본느대학의 동양연구소와 1950년 이후 북경의 동양학연구소(Ancien Centre d'Études Chinoises)에서 이관된 자료들로 이루어져 있다.[2)]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은 그 동안 모두 중국 컬렉션으로 분류되어 소장되어 왔고 자료명과

1) 〈http://www.college-de-france.fr/default/EN/all/his_arc/〉. [cited 2011.10.13].
2) 〈http://www.college-de-france.fr/default/EN/all/ins_bib_en/far_east.htm〉. [cited 2011.10.13].

저자명이 중국어 발음의 프랑스어표기로 기록되어 자료의 확인이 쉽지 않았다.

그런데 2003년경부터 도서관에서는 중국 컬렉션의 자료 중 한국자료와 일본자료를 선별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 후 2005년 6월, 이들 선별된 자료들은 각각 한국 컬렉션과 일본 컬렉션으로 이관되었다. 선별의 기준은 한국에서 발간된 자료만이 아니라 한국인 저자나 한국관련 자료도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관된 자료를 보면 1930년 일본 동경에서 발간한 최해(崔瀣)의 문집『졸고천백(拙藁千百)』2책 영인본을 비롯하여 1954년 발행되고 발행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인『훈민정음 해례본 사진판』, 1954년 연희대학교 동방학연구소의『시용향악보(時用鄕樂譜)』영인본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모리스 꾸랑의『한국서지(*Bibliographie Coréenne*)』원본 4책도 이관되었다. 이들 자료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확인된 한국고서는 모두 53종 421책이다.[3] 자료의 간략한 목록은 〈표 1〉과 같다.

〈표 1〉 꼴레쥬 드 프랑스 소장 한국 고문헌 목록

	등록번호	자료명	저자사항	책수	발행사항	판사항
1	n° 1785	進宴儀軌, 卷首	[進宴都監(朝鮮) 編]	1	[光武 6(1902)]	金屬活字本(整理字)
2	n° 3231	增補文獻備考	弘文館(朝鮮) 纂輯校正	50	隆熙 2(1908)	新鉛活字本
3	n° 3232	國朝寶鑑		28	隆熙 3(1909)	金屬活字本(壬辰字)
4	n° 3764	國朝寶鑑	春秋館(朝鮮) 受命編	26	憲宗 14(1848)	木板本
5	n° 5228	兩銓便考	高宗(朝鮮) 命編	2	高宗 2(1865)	金屬活字本(全史字)
6	n° 5230	陟州東海碑	許穆(朝鮮) 書	1	[肅宗35(1709) 以後]	拓本
7	n° 5258	燕行事例		1		筆寫本
8	n° 5263	磻溪隨錄	柳馨遠(朝鮮) 著	13	[英祖 46(1770), 後刷]	木板本
9	n° 5268	全韻玉篇		2		木板本
10	n° 5271	東國文獻錄並俎豆錄		1	[19世紀後半]	木板本
11	n° 5273	宣和奉使高麗圖經	徐兢(宋) 著	1		筆寫本
12	n° 5281	攷事撮要	魚叔權(朝鮮) 撰	1	[英祖 6 - 英祖 11 (1730-1735)]	木板本
13	n° 5316	全韻玉篇		1		木板本
14	n° 5319	簡禮彙纂		1		木板本
15	n° 5330	同文考略	司譯院(朝鮮) 纂述	16		金屬活字本 (後期芸閣印書體字)
16	n° 5332	紀年兒覽	李萬運 編	6		筆寫本
17	n° 5333	大典會通	趙斗淳(朝鮮) 等 受命編	6	高宗 2(1865)	木板本
18	n° 5336	六典條例	高宗(朝鮮) 命編	10	高宗 3(1866)	金屬活字本(全史字)
19	n° 5340	東國文獻備考	英祖(朝鮮)命編; 洪鳳漢(朝鮮)等奉敎編輯; 崇政殿校正	40	英祖 46(1770)	金屬活字本 (後期芸閣印書體字)
20	n° 5343	退陶先生自省錄	李滉(朝鮮)著	1	羅州, 宣祖 18(1585)	木板本

3) 중국 컬렉션의 자료 선별작업이 진행 중이라 한국자료는 더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등록번호	자료명	저자사항	책수	발행사항	판사항
21	n° 5344	東京雜記	閔周冕(朝鮮) 編	3		木板本(後刷)
22	n° 5345	百憲要覽		4		筆寫本
23	n° 5346	大東韻府群玉	權文海 著	20		木板本
24	n° 5372	三國史記	金富軾(朝鮮) 撰	10		金屬活字本 (顯宗實錄字)
25	n° 5373	朝野會通		16		筆寫本
26	n° 5380	銀臺便考	承政院(朝鮮) 編	10		筆寫本
27	n° 5382	高麗史	鄭麟趾(朝鮮)…等奉 勅撰	71		筆寫本
28	n° 5393	小華外史	吳慶元 編; 吳顯相 重校	6	高宗 5(1868)	木板本
29	n° 5394	新增東國輿地勝覽	盧思愼(朝鮮), 成俔等奉敎撰	1		木板本(後刷)
30	n° 5405	[天下諸國圖]		1		筆寫本
31	n° 5417	[物目]		1		筆寫本
32	n° 5420	赤鼠錄		1		筆寫本
33	n° 5424	御定奎章全韻	正祖(朝鮮)命撰; 奎章閣編	1	冶洞, 高宗 24(1887)	木板本
34	n° 5428	南漢伽藍志		1		筆寫本
35	n° 5429	童蒙先習	朴世茂(朝鮮) 著	1		木板本
36	n° 5431	朝鮮朝廷禮節		2		筆寫本
37	n° 5432	海東雜類		1		筆寫本
38	n° 5433	三班禮式	高宗(朝鮮)命編	1	高宗 5(1868)序	木板本
39	n° 5434	四溟堂大師集	惟政(朝鮮)著	1	[孝宗 3(1652)]	木板本
40	n° 5435	華城圖		1		筆寫本
41	n° 5438	法規類編	內閣記錄局 編	3	建陽元-光武 2 (1896-1898)	新鉛活字本
42	n° 5439	進饌儀軌	[進宴都監(朝鮮) 編]	4	憲宗 15(1849)	木板本
43	n° 5440	麗史提綱	兪棨(朝鮮) 編	13	顯宗 8(1667)序, [後刷]]	木板本
44	n° D6941	地方制度	大韓帝國內部 編	1	漢城: 大韓帝國內部, 建陽 1(1896)	金屬活字本(整理字)
45	n° D6942	諭中外大小民人等斥 邪綸音: 幷諺解	憲宗(朝鮮) 撰	1	憲宗 5(1839)	金屬活字本(丁酉字)
46	n° D429	海東諸國記	申叔舟(朝鮮) 編	1		筆寫本
47	n° 10738	神道碑銘 / 楊鎬去思碑銘	李廷龜 撰; 金尙容 篆; 金玄成 書 / 申在植 撰; 申緯 書	2		筆寫本
48	n° 10869	[木板印刷物]		12	[1892年 以後]	木板本
49	n° 55485	眈羅志		1		筆寫本
50		璿源系譜紀略	宗簿寺 編	8		木板本
51		書傳諺解 卷1,2,5		3		木板本
52		書傳大全		10		木板本(後刷)
53		御製諭大小臣僚及中 外民人等斥邪綸音: 幷 諺解	高宗(朝鮮) 撰	1	高宗 18(1881)	金屬活字本(壬辰字)

중국 컬렉션에서 이관된 자료들은 중국을 표시하는 "CHINE" 레이블이 부착되어 있으며 현재 "COREE"라는 한국 장서 레이블을 부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각 자료에는 "Institut des Hautes Études Chinoises De Paris Bibliothèque"라는 내용의 타원형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다.

소장 자료 중『척주동해비(陟州東海碑)』와『고사촬요(攷事撮要)』의 표지가 개장된 반면 꼴레쥬 드 프랑스 소장본은 서구의 도서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서양식 양장본으로 개장되지 않아 한국고서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자료는 포갑이나 중성지로 제작된 보존상자에 보관되어 있어 자료의 보존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이밖에도 현재 프랑스 내에 한국고서가 소장된 기관과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꼴레쥬 드 프랑스와 같은 건물에 위치한 아시아학회(Société Asiatique)에 꼴레쥬 드 프랑스에 소장된 것과 동일한 신연활자본『증보문헌비고』50책이 소장되어 있다. 아시아학회는 1822년 당시 프랑스내의 오리엔탈리즘을 반영하여 설립된 학회로 중국・일본 등 아시아 각국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보존하고 있다.

국립예술사연구소(Institut National d'Histoire de l'Art)에는『삼강행실(三綱行實)』,『전문천자(篆文千字)』등 2종의 한국고서를 소장하고 있는데 모두 구한말 프랑스 전권공사였던 꼴렝 드 쁠랑시(Collin de Plancy)의 장서이다. 그동안 꼴렝 드 쁠랑시의 장서는 프랑스 국립도서관과 기메박물관 등에 이관된 것으로 알려졌었으나 작은 수량이나마 프랑스 내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었을 가능성도 보이는 부분이다.

1653년 설립된 프랑스 선교사 중심의 가톨릭 선교단체인 파리외방전교회(Missions étrangères de Paris)에도 한국고서 21종 87책이 소장되어 있고 한국관련 고지도도 10여종 소장되어 있다. 이들 고서들은 20세기 초기에 신연활자본으로 간행된 성경류가 대다수이나 이 가운데 꼴레쥬 드 프랑스와 아시아학회에 소장된 것과 동일본『증보문헌비고』가 소장되어 있는 것은 특기할 만한 점이며, 고지도는 당시 선교활동과 관련된 지도와 서양에서 제작한 한국지도가 소장되어 있다.

종합하여 보면 프랑스 내의 한국고서는 기존에 알려져 있던 프랑스 국립도서관이나 국립동양언어와 문화학교, 기메박물관 등뿐 아니라 구한말 한국과 교류가 있었던 여러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꼴레쥬 드 프랑스 소장본의 성격과 특징

꼴레쥬 드 프랑스 도서관에 소장된 한국고서의 특성을 주제별, 판종별, 시기별로 분석해 보고 주요 자료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주제별 분석

꼴레쥬 드 프랑스 도서관에 소장된 한국고서의 주제별 특성을 살피기 위하여 우선 동양의 전통분류법인 사부분류법으로 구분하여 보면 경부(經部) 7종 19책, 사부(史部) 40종 366책, 자부(子部) 3종 22책, 집부(集部) 3종 14책으

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표 2〉와 같다.

또한 장서형성 당시 프랑스인에 의한 최초의 한국고서 주제분류인 모리스 꾸랑의 『한국서지』의 분류법에 의한 분류는 〈표 3〉과 같다.

꼴레쥬 드 프랑스 도서관의 한국고서의 장서

〈표 2〉 사부분류법에 따른 장서 분류

사부분류		종수	책수
經部	書類	2	13
	小學類	4	5
	禮類	1	1
史部	金石類	2	3
	譜系類	1	8
	史表類	1	6
	雜史類	2	2
	傳記類	1	1
	政法類	17	160
	正史類	2	81
	詔令·奏議類	2	2
	地理類	5	7
	職官類	3	13
	編年類	4	83
子部	類書類	2	21
	儒家類	1	1
集部	別集類	1	1
	雜著類	2	13
합 계		53	421

〈표 3〉 모리스 꾸랑 분류에 따른 장서 분류

모리스 꾸랑 분류	종수	책수
Ⅰ部 敎誨部 〉1章 敎育類	1	1
Ⅰ部 敎誨部 〉2章 簡牘類	1	1
Ⅱ部 言語部 〉1章 漢語類	3	4
Ⅲ部 儒敎部 〉1章 經書類	2	13
Ⅲ部 儒敎部 〉3章 儒家類	1	1
Ⅳ部 文墨部 〉2章 文集類	1	1
Ⅴ部 儀範部 〉1章 禮儀類	5	9
Ⅴ部 儀範部 〉2章 治理類	12	56
Ⅵ部 史書部 〉1章 東史類	11	186
Ⅵ部 史書部 〉2章 東雜蹟類	9	140
Ⅵ部 史書部 〉4章 地理類	7	9
합 계	53	421

규모가 크지 않아 주제분류를 통하여 장서의 성격을 논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부(史部)의 정법류・정사류・편년류의 자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모리스 꾸랑의 분류에서도 역시 역사류인 사서부(史書部, Histoire et géographie)의 동사류(東史類, Histoire et la Corée)와 동잡적류(東雜蹟類, Documents relatifs à la Corée)의 자료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구한말 한국고서를 수집하였던 수집가의 수집성향이나 당시 이들이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자료의 성격, 또한 한국고서의 간행이나 필사에 있어 많은 분량을 차지했던 자료를 파악할 수 있다.

3.2 판종별 분석

꼴레쥬 드 프랑스 도서관의 한국고서를 판종별로 분석하여 보면 목판본 23종 136책, 필사본은 17종 121책, 금속활자본 10종 110책, 신연활자본 2종 53책, 탁본 1종 1책으로 나타났다.

금속활자본의 경우 임진자(壬辰字)본은『유중외대소민인등척사윤음(諭中外大小民人等斥邪綸音)』,『국조보감(國朝寶鑑)』이 있고 정유자본은『어제유대소신료급중외민인등척사윤음(御製諭大小臣僚及中外民人等斥邪綸音)』, 현종실록자본은 『삼국사기(三國史記)』 1종, 후기운각인서체자본은『동문고략(同文考略)』,『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등 2종, 정리자본은『진연의궤(進宴儀軌)』,『지방제도(地方制度)』 등 2종, 전사자본은『양전편고(兩銓便考)』,『육전조례(六典條例)』 등 2종으로 조사되었다.

필사본의 경우 국내외에서 전래되는 것이 적은 희귀본『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가 소장되어 있으며, 고지도로는 채색필사본인『천하제국도(天下諸國圖)』가 있는데 이에 수록된 내용은〈천하제국도(天下諸國圖)〉,〈성경여지전도(盛京輿地全圖)〉,〈유구도(琉球圖)〉,〈일본도(日本圖)〉,〈임진목호정계시소모(壬辰穆胡定界時所模)〉,〈동국팔도대총도(東國八道大總圖)〉,〈경기도(京畿道)〉,〈충청도(忠淸道)〉,〈전라도(全羅道)〉,〈경상도(慶尙道)〉 등이다. 이 중〈임진목호정계시소모〉는 아직 유사한 지도가 거의 발견되고 있지 않아 백두산정계비에 대한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어 중요한 지도라 여겨진다.

신연활자본은 1908년에 간행된『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1종 50책이 소장되어 있다. 탁본자료는 숙종 35(1709)년 이후로 추정되는『척주동해비(陟州東海碑)』 1첩이 소장되어 있다.

3.3 시기별 분석

꼴레쥬 드 프랑스 소장본의 시기별 장서 분포를 보면 19세기에 발간된 자료가 38종 278책으로 가장 많고 20세기 발간 자료는 10종 90책이다. 18세기에 발간된 것은 3종 51책이며 선조(宣祖) 18(1585)년 나주목(羅州牧)에서 간행된『퇴도선생자성록(退陶先生自省錄)』과 효종(孝宗) 3(1652)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사명당대사집(四溟堂大師集)』은 귀중자료로 여겨진다.

19세기와 20세기에 발간된 자료가 전체 장서 중 87.3%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수집 당시에 간행된 자료들이 역시 쉽게 구해질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꼴레쥬 드 프랑스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종합하여 보면 꼴레쥬 드 프랑스 소장 한국고서는 사부(史部)의 정법류・정사류・편년류의 자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판종별로는 금속활자본・목판본・필사본이 고루 분포되어 있다. 자료의 발행시기는 19세기와 20세기의 자료가 대부분이며, 이는 자료의 수집시기가 조선시대 말기에 해당하므로 비교적 간행된지 오래지 않은 자료들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었던 때문이었던 듯하다.

또한, 자료의 전래를 추정할 수 있는 장서인의 경우 『국조보감』에는 '규장지보(奎章之寶)', 『삼국사기』에는 '시강원장서(侍講院藏書)', 『고사촬요』에는 '양안원장서(養安院藏書)' 등의 장서인이 각각 날인되어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필사본 『해동제국기』에 'Haguenauer'라고 초록색 펜으로 쓴 서명이다. 이것은 동양어학교의 일본학 연구자이면서 한국에 관한 일련의 연구 성과를 남겼던 샤를 아그노에르(Charles Haguenauer, 1896-1976) 교수로 추정된다. 이 서명은 권수제면과 권말 2곳에서 발견되는데 아그노에르 교수의 수집본이 꼴레쥬 드 프랑스에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이다.

4. 꼴레쥬 드 프랑스의 모리스 꾸랑 소장본

『한국서지(*Bibliographie Coréenne*)』는 구한말 한국 고서의 현황과 프랑스 내 한국고서 소재파악의 중요한 참고서이다. 이 책의 저자인 모리스 꾸랑(Maurice Courant, 1865-1935)은 1865년 파리에서 태어나 파리대학 법대와 동양어학교에서 고등교육학위를 받고 북경의 프랑스 공사관 통역관 실습생 자격으로 파견되었다. 한국과의 인연은 1890년 5월 23일 통역서기관으로 서울로 오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모리스 꾸랑의 상관이자 외교관 동료가 빅또르 꼴렝 드 쁠랑시(Victor Collin de Plancy, 1853-1922)이다. 모리스 꾸랑은 쁠랑시를 통해 한국의 서지와 한국학 전반에 관심을 갖게 된다. 모리스 꾸랑은 1892년 3월 한국을 떠나지만 『한국서지(*Bibliographie Coréenne*)』를 구상했던 꼴렝 드 쁠랑시, 구스타브 뮈텔(Gustave Mutel, 1852-1933) 주교, 그리고 한국 선비들의 도움을 받아 모두 3,841종의 한국고서를 서지목록과 해제 그리고 소장처까지도 조사하여 완성하였다(Bouchez 1986a).

『한국서지』는 제1권이 1894년, 제2권이 1895년, 그리고 1896년에 3권이 출판되었고 그 후 보완이 계속 이루어져 1901년 보유판까지 출간되었다. 『한국서지』는 한국학이라는 용어조차 없었던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작성된 한국자료에 대한 방대한 규모의 서지자료로 오늘날에도 한국학을 연구하는 국내외 학자들에게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언급한 바와 같이 모리스 꾸랑은 자료마다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소장처를 명기하였는데 『한국서지』에 표시된 소장처는 기관으로는 B.R.(서울의 규장각), Bibl. Nat.(프랑스 파리의 국립도서관), Brit. M.(대영박물관 동양본과), C. des Int.(서울의 사역원), Com. F. S.(서울의 프랑스 공사관), L.O.V.(파리의 동양어학교 도서관), Miss. étr. Séoul(서울의 외방선교회도서관) 등이 포함되었고 개인 소장은 A.V.(A. Vissière),

C.P.(Collin de Plancy), J.B.(J. Beauvais), M.C.(Maurice Courant), Coll. v. d. Gabelentz (본 데 가벨렌츠의 장서), Coll. Varat(바라의 장서) 등이다.

『한국서지』의 서문을 보면 모리스 꾸랑은 "서울의 책방을 모두 뒤지고 그 장서를 살펴나갔다. 가장 흥미있을 것 같은 책들을 사들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써 놓았다"고 기록하고 있다(이희재 1994b). 그 동안 프랑스 내 한국고서는 대부분 꼴렝 드 쁠랑시의 소장본이 유입된 것이라는 점과 모리스 꾸랑 소장본이 꼴레쥬 드 프랑스 중국장서에 포함되었다는 점 이외에는 자료명조차 확인되지 않았던 실정이었다.

모리스 꾸랑의 개인장서는 1936년 두 차례에 걸쳐 꼴레쥬 드 프랑스의 중국연구소(漢學研究所, IHEC: Institut des Hautes Études Chinoises)에서 구입하였다. 모리스 꾸랑의 말년을 보면 1932-1933년도에 과로로 강의를 중단하고 장기간 휴가를 보냈으며 1934년 초에 뇌출혈로 모든 활동을 중지하였다가 1935년 8월 18일 사망하게 된다(Bouchez 1986b). 따라서 꼴레쥬 드 프랑스에서 모리스 꾸랑의 장서를 구입한 1차 구입시기가 1936년 1월 15일이었던 만큼, 모리스 꾸랑 사후에 이 자료들이 매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4]

『한국서지』에 'M.C.'로 표기된 모리스 꾸랑의 소장본은 모두 84종 366책이다.[5] 이를 토대로 현존하는 꼴레쥬 드 프랑스 한국 고서와 모리스 꾸랑 개인 장서와의 관계 규명을 위하여 조사자료와 『한국서지』에 M.C.로 표기된 내용을 비교・검토하였다. 비교 결과 꼴레쥬 드 프랑스 소장 한국고서 53종 421책 중 조사된 자료 중 32종 254책이 모리스 꾸랑 소장본임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

4) 꼴레쥬 드 프랑스 극동도서관 사서인 노미숙(Mi-sug No) 선생이 등록원부상의 '1er acht Courant(꾸랑 1차 구입)', '2e acht Courant(꾸랑 2차 구입)' 등의 내용을 확인해 주었다. 2차 구입은 날짜 없이, 지출 번호 Dép. n° 79~1935-1936로만 표기되어 있다. 또한 다니엘 부세(Daniel Bouchez) 교수는 『한국서지』 권두사에서 모리스 꾸랑이 구입한 자료를 꼴레쥬 드 프랑스 중국연구소에서 재구입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5) 『한국서지』에 수록된 모리스 꾸랑 소장본 3. 千字文 12. 童蒙先習 29. 簡禮彙纂 67-II. 御定奎章全 68-II. 全韻玉篇 285bis 退陶先生自省錄 582bis 文節公遺稿 631-II. 四溟集 768. 剪燈新話 1047. 五禮儀 1053. 三班禮式 1068-I. 四禮便覽 1069. 四禮撮要 1073. 喪禮備要 1077. 五服名義 1156. 俎豆錄 1181. 忠烈祠志 1305. 進饌儀軌 1316. 喪禮補編 1461. 大典會通 1462. 六典條例 1467. 百憲要覽 1517. 銀臺便攷 1525. 兩銓便攷 1694. 通文館志 1723. 燕行事例 1726. 儐禮摠覽 1744. 同文考略 1777. 大明律附例 1835. 三國史記 1850. 高麗史 1851-III. 東國通鑑 1857. 麗史提綱 1861. 東國通鑑提綱 1864. 紀年兒覽 1910. 璿源系譜紀略 1921. 東國文獻錄 2030. 赤鼠錄 2079. 篆韻便覽 2105-II. 攷事撮要 2108. 大東韻府群玉 2112. 東國文獻備考 2116. 後自警編 2187. 天下諸國圖 2195. 海左全圖 2196-II. 大東輿地圖 2207. 漢陽全圖 2211. 東京全圖 2214. 湖南地圖 2215. 無題[全州] 2218. 龜城地圖 2223. 宣和奉使高麗圖經 2229. 朝鮮志 2236. 鷄林志 2279. 南漢伽藍誌 2292. 東京雜記 2316. 海東諸國記 2366. 天象列次分野之圖 2573. 梁琴新譜 2811. 大朝鮮大法國條約 3104. 近世朝鮮政鑑 3387. 上尊號文 3388. (無題)[敍壬帖] 3408. 揭付各廳 3419. 法規類編續 3491. 御製閱武亭四井記帖 3516. 經理朝鮮右僉都御史楊公去思碑 3519. 遲遲臺碑銘帖 3520. 御製花山龍珠寺奉佛祈福偈 3523. 大清皇帝功德碑 3525. 大唐平百濟國碑銘 3530. 紛(?)條制札 3532-III. 陟州東海碑 3540. 句麗古碑 3541. 御製釋王寺碑文 3573. 孝簡公神道碑銘 3577. 思彦君墓碑文 3585. 御製文孝世子神道碑銘帖 3586. 孝憲公神道碑謄本 3596. 御製李忠武公碑帖 3675. 新法地平日晷 3676. 簡平日晷 3736. 秘密敎.

〈표 4〉 꼴레쥬 드 프랑스 소장 모리스 꾸랑 장서

	등록번호	자료명	한국서지 수록 번호 및 분류	책수
1	n° 5228	兩銓便考	Ⅴ部 儀範部 〉2章 治理類 〉1525. 兩銓便攷	2
2	n° 5230	陟州東海碑	補遺版 〉6部 史書部 〉3532. 陟州東海碑	1
3	n° 5258	燕行事例	Ⅴ部 儀範部 〉2章 治理類 〉1723. 燕行事例	1
4	n° 5271	俎豆錄	Ⅴ部 儀範部 〉1章 禮儀類 〉2. 儀式 〉1156. 俎豆錄	1
5	n° 5273	宣和奉使高麗圖經	Ⅵ部 史書部 〉4章 地理類 〉2223. 宣和奉使高麗圖經	1
6	n° 5281	攷事撮要	Ⅵ部 史書部 〉2章 東雜蹟類 〉5. 類書, 抄錄 〉2105. 攷事撮要	1
7	n° 5316	全韻玉篇	Ⅱ部 言語部 〉1章 漢語類 〉1. 一般書 〉68. 全韻玉篇	1
8	n° 5319	簡禮彙纂	Ⅰ部 敎誨部 〉2章 簡牘類 〉29. 簡禮彙纂	1
9	n° 5330	同文考略	Ⅴ部 儀範部 〉2章 治理類 〉1744. 同文考略	16
10	n° 5332	紀年兒覽	Ⅵ部 史書部 〉1章 東史類 〉1864. 紀年兒覽	6
11	n° 5333	大典會通	Ⅴ部 儀範部 〉2章 治理類 〉1461. 大典會通	6
12	n° 5336	六典條例	Ⅴ部 儀範部 〉2章 治理類 〉1462. 六典條例	10
13	n° 5340	東國文獻備考	Ⅵ部 史書部 〉2章 東雜蹟類 〉2112. 東國文獻備考	40
14	n° 5343	退陶先生自省錄	Ⅲ部 儒敎部 〉3章 儒家類 〉285bis. 退陶先生自省錄	1
15	n° 5344	東京雜記	Ⅵ部 史書部 〉4章 地理類 〉2292. 東京雜記	3
16	n° 5345	百憲要覽	Ⅴ部 儀範部 〉2章 治理類 〉1467. 百憲要覽	4
17	n° 5346	大東韻府群玉	Ⅵ部 史書部 〉2章 東雜蹟類 〉2108. 大東韻府群玉	20
18	n° 5372	三國史記	Ⅵ部 史書部 〉1章 東史類 〉1835. 三國史記	10
19	n° 5380	銀臺便考	Ⅴ部 儀範部 〉2章 治理類 〉1517. 銀臺便攷	10
20	n° 5382	高麗史	Ⅵ部 史書部 〉1章 東史類 〉1. 일반역사 〉1850. 高麗本史	71
21	n° 5405	[天下諸國圖]	Ⅵ部 史書部 〉4章 地理類 〉2187. 天下諸國圖	1
22	n° 5420	赤鼠錄	Ⅵ部 史書部 〉1章 東史類 〉2030. 赤鼠錄	1
23	n° 5424	御定奎章全韻	Ⅱ部 言語部 〉1章 漢語類 〉67. 御定奎章全韻	1
24	n° 5428	南漢伽藍志	Ⅵ部 史書部 〉4章 地理類 〉2279. 南漢伽藍誌	1
25	n° 5429	童蒙先習	Ⅰ部 敎誨部 〉1章 敎育類 〉12. 童蒙先習	1
26	n° 5438	法規類編	補遺版 〉5部 儀範部 〉2章 治理類 〉3419. 法規類編續	3
27	n° 5433	三班禮式	Ⅴ部 儀範部 〉1章 禮儀類 〉1053. 三班禮式	1
28	n° 5439	進饌儀軌	Ⅴ部 儀範部 〉1章 禮儀類 〉1305. 進饌儀軌	4
29	n° 5440	麗史提綱	Ⅵ部 史書部 〉1章 東史類 〉1857. 麗史提綱	13
30	n° 10738	神道碑銘楊鎬去思碑銘	補遺版 〉6部 史書部 〉3516. 鮮右僉都御史楊公去思碑	2
31	n° 10869	[木版印刷物][6]	-	12
32	-	璿源系譜紀略	Ⅵ部 史書部 〉1章 東史類 〉1910. 璿源系譜紀略	8
				254

6) 이 자료는『한국서지』에는 수록되지 않았으나 '大淸光緖十七年歲次辛卯時憲曆', '捷解新語', '演礮圖說輯要', '整理儀軌' 도판 등 낱장 인쇄물 12장이 있다. 모두 모리스 꾸랑이 받은 우편물 봉투에 낱장으로 들어있어 모리스 꾸랑이 수집하여 보관한 인쇄물로 추정된다.

5. 꼴레쥬 드 프랑스 소장본의 활용방안

꼴레쥬 드 프랑스는 자료관리시스템으로 알레프(Aleph)를 사용하고 있다.[7] MARC는 UNIMARC를 사용하고 있으며 기술규칙은 ISBD를 따르고 있다. 특히 한글 로마자 표기법은 맥큔-라이샤워(McCUNE-Reischauer)체제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고서는 서지데이터가 소략하고 일부 데이터베이스 미구축자료가 있으나 대부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다. 〈그림 1〉은 『해동제국기』의 검색결과의 예이다.[8]

제공되는 내용은 자료명(Titre)이 한자와 로마자 표기로 병기되어 있고 판사항(Edition)·발행사항(Editeur)·형태사항(Collation)·일반주기(Note generale)·통합서명(Titre uniforme)·색인어(Indexation libre)·저자사항(Auteur)·상세서지(Exemplaires)·자료위치(Localisation) 등이다.

해외에 소장된 한국고서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쉽게 서지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 해외소재 한국고서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것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운영하는 '국외한국문화재 자료정보관'[9]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KORCIS)'[10]이 있을 뿐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국외한국문화재 자료정보관'은 고서를 비롯하여 도자기, 장신구, 미술품 등 해외의 한국 문화재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공되는 항목이 유물명·분류·수량·시대·국가·소장처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COLLÈGE DE FRANCE 1530

Catalogue de la Bibliothèque du Collège de France

Portail Aide Catalogues Préférences Compte lecteur Quitter

Rechercher | Liste des résultats | Recherches précédentes | Panier |
Ajouter au panier | Enregistrer/Envoyer | SFX |

Notice complète

Choisir un format : Format standard ISBD Références Libellés Etiquettes MARC

Notice 1 sur 1 — Previous Record — Next Record

Titre	海東諸國記 / 申叔舟 序
	Haedong cheguk ki / Sin Suk-chu
Edition	養安院藏書抄版
Editeur	[s.l.] : [s.n.], [1501]弘治十四年
	[s.l.] : [s.n.], 1501
Collation	1 fasc. : cartes ; 34cm
Note generale	正德七年[1512]弘文館校理洪彦弼內賜
Titre uniforme	Haidong zhuguo ji
Indexation libre	géographie -- cartographie -- Extrême-Orient -- Corée -- Choson
Auteur	申叔舟
	Sin, Suk-chu
Tous les exempl.	Exemplaires
Localisation	Etudes coréennes - Cote : KS D

〈그림 1〉 꼴레쥬 드 프랑스 도서관 해동제국기 검색결과

7) 〈http://www.exlibrisgroup.com/category/Aleph〉.
8) 〈http://bude.college-de-france.fr〉.
9) 〈http://overseas.nricp.go.kr/〉.
10) 〈http://www.nl.go.kr/korcis/〉.

반면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이하 KORCIS)'은 한국고전적에 대한 목록·해제·원문 등의 데이터접근과 표준화된 목록데이터베이스구축을 용이하게 서비스하기 위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현재 국내 52개 기관과 해외 33개 기관의 목록이 구축되어 있다. 꼴레쥬 드 프랑스 도서관 소장 한국고서도 종합목록인 KORCIS에 목록을 구축하여 활용한다면 국내 소장본과의 비교연구나 원문데이터베이스의 활용도 용이할 것이다.

또한 꼴레쥬 드 프랑스에서도 서지목록의 경우 KORCIS에서 부여받은 도서관 부호로 로그인하여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UNIMARC로 변환하여 다운로드하고 이를 Aleph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편집하여 사용하면 한국자료의 목록, 특히 고서전문가가 없는 해외 기관에서의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밖에도 Z39.50에서 MARC21로 다운받을 수 있는 환경을 활용하여 Aleph시스템에 연계하여 MARC21을 UNIMARC로 변환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또한 KORCIS의 원문이미지를 Aleph와 연계하면 원문데이터베이스의 중복구축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MARC형식뿐 아니라 다양한 시스템에서 자료를 공유하기 위하여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11]로 데이터를 기술하는 방안도 있다. 이를 위하여 기술요소로 서명저자사항·자료형태·언어·관련기호·판사항·형태사항·발행사항·주기·해제 등을 선정하고 XML DTD를 적용할 수 있다(김정하 2004, 62-76; 이희재 2005, 112-113).

이상 적용된 각 요소들을 목록의 형식으로 구현하면 〈그림 2〉와 같다.

서명 저자 사항	본서명		海東諸國記
	표지서명		海東諸國記
	저자		申叔舟(朝鮮) 編
자료 형태	특정자료유형		고서 - 선장
언어 (다수 언어)	본문		한문
	해제		한글
	원저작		한문
기호	분류기호 (사문법)	부(部)	史部
		류(類)	政法類
	자관 청구기호		D429
판사항	판종		필사본
형태 사항	권책수		1冊
	삽도		地圖
	판식	광곽의 종류	四周雙邊, 半郭
		광곽의 크기	26.1 × 17.1cm
		계선	有界
		행자수	10行20字
		판구	黑口
		어미	內向黑魚尾
	크기		34.0 × 24.0cm
발행 사항	발행지		未詳
	발행년		[朝鮮末]
	발행자		未詳
주기 사항	원본주기		低本內賜記: 正德七年(1512)三月內賜弘文館校理洪彦弼海東諸國記一件命除謝
			低本刊記: 弘治十四年(1501)四月二十二日 啓下承文院
	인문		宣賜之記
			養安院藏書
	소장본		Charles Haguenauer 교수 소장본
해제			해동제국기는 1443년 (세종25) 서장관(書狀官)으로 일본에 다녀온 신숙주가 편찬한 책이다. 일본과 교류할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선과 해동제국즉, 조선의 동쪽에 있는 일본과의 관계사를 서술한 것이다...[more]

〈그림 2〉 해동제국기 목록구현

11) 〈http://www.w3.org/TR/REC-xml/〉.

6. 결 론

프랑스 내의 한국 고서들은 프랑스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동양어학교(국립동양언어와 문화학교, INALCO: Institut Nationale des Langues et Civilizations Orientals), 기메박물관(Musée National des Arts Asiatiques-Guimet)에 소장된 자료들은 그 규모나 자료의 성격이 조사・보고되었으나, 꼴레쥬 드 프랑스에 소장된 한국고서는 일부 모리스 꾸랑의 개인 소장본이 유입되었다는 것 이외에는 알려진 바 없었다.

이번 조사를 통하여 꼴레쥬 드 프랑스 한국고서는 모두 53종 421책이며 이중 모리스 꾸랑의 소장본은 32종 254책임이 확인되고, 주제별로는 사부(史部)의 정법류・정사류・편년류의 자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판종별로는 금속활자본・목판본・필사본이 고루 분포되어 있고 자료의 발행시기는 19세기와 20세기가 대부분이었다.

소장 자료 중 선조 18(1585)년 나주목(羅州牧)에서 간행된 『퇴도선생자성록(退陶先生自省錄)』과 효종 3(1652)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명당대사집(四溟堂大師集)』, 임진자본으로 '규장지보(奎章之寶)'가 날인되어 있는 『국조보감(國朝寶鑑)』, '시강원장서(侍講院藏書)'인(印)이 날인되어 있는 현종실록자본 『삼국사기(三國史記)』 등은 국내에 동일한 판본이 소장되어 있기는 하나 귀중본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국내외에서 전래가 드문 희귀본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 고지도인 『천하제국도(天下諸國圖)』 등은 현존본과 심도있는 비교연구가 필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또한 샤를 아그노에르(Charles Haguenauer) 교수의 서명이 있는 『해동제국기』의 사례로 보아,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소장하였던 연구자들의 장서가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 내의 한국고서의 특징은 기메박물관의 경우 현재에도 프랑스 내 수집상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한국고서를 구입하고 있으며[12] 꼴레쥬 드 프랑스측은 앞으로 한국학연구소와 함께 도서관의 한국컬렉션을 프랑스 내 한국고서 중심의 도서관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13]는 점이다. 이는 이미 조사가 완료된 기관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조사・연구해야 할 부분이다.

최근 조선왕조의궤 등 불법반출 문화재반환의 문제에서 논의되는 바와 같이 해외 소재 한국고서의 소장경위는 불법성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며, 이는 자료의 심도있는 서지조사를 통해서만 규명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독도 등 영토・영해와 관련된 국가 간의 분쟁에 있어서도 그 논리의 근거는 각 기관에 소장된 자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학문연구에 있어서도 기초자료 조사의 중요성은 간과되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사・연구의 활동이 종합목록을 통하여 상호 교환되고 희귀 고서는 디지털화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관련 연구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

12) 2010년 6월 2일 2시 F. Macoin 기메박물관 도서관장과의 인터뷰.
13) 2010년 5월 31일 10시 Marie-Renée Cazabon 꼴레쥬 드 프랑스 도서관장과의 인터뷰.

참 고 문 헌

[1] 강순애. 2008. 해외소장 고문헌의 DB 구축과 공동활용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3): 61-79.

[2]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해외전적문화재조사목록: 카자흐스탄 국립도서관 소장 한국본』.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3] 김봉희. 1990. 모리스 꾸랑의 「한국서지(韓國書誌)」 중 천주교류 연구. 『서지학연구』, 5: 87-125.

[4] 김정하. 2004. 『고서의 효율적인 정보조직체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5] 박병선. 1985. 『朝鮮朝의 儀軌: 파리소장본과 국내소장본의 서지학적 비교 검토』.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6] 박상국. 2003a. 해외 전적조사와 프랑스 조사. 『문화재』, 36: 379-386.

[7] 박상국. 2003b. 유럽소재 한국 고문헌 정리의 현황과 과제. 『대동한문학』, 18: 91-123.

[8] 이진명. 2003. 프랑스 국립도서관 및 동양어대학 도서관 소장 한국학 자료의 현황과 연구 동향. 『국학연구』, 2: 183-221.

[9] 이희재. 1988. 모리스 꾸랑과 韓國書誌에 관한 考察. 『淑明女大 論文集』, 28: 325-364.

[10] 李姬載. 1994a. 프랑스 빠리東洋語學校 圖書館 所藏本의 主題別 特性과 意義. 『書誌學硏究』, 10: 237-274.

[11] 李姬載. 1994b. 『韓國書誌』. 모리스 꾸랑 原著. 修正飜譯版. 서울: 一潮閣.

[12] 이희재. 2005. 국학고전자료의 디지털화를 위한 모범적인 방안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2(1): 105-123.

[13] 이희재. 2009. 재불 한국 고서의 현황과 발전방향. 『국외소재 한국 고문헌 수집 성과와 과제』.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4] 이혜은. 2007. 미국 하바드옌칭도서관 소장 한국고서 디지털화 프로젝트. 『서지학보』, 31: 283-299.

[15] 이혜은. 2010.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 수집사업의 성과와 과제. 『국외소재 한국 고문헌 수집 성과와 과제』. 개정판.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6] 프랑스국립극동연구원. 2006. 『서울의 추억 Souveniers de Seoul』. 서울: 프랑스 국립극동연구원.

[17] Bouchez, Daniel. 1986a. 한국학의 선구자 모리스 꾸랑 (上). 『동방학지』, 51: 153-194.

[18] Bouchez, Daniel. 1986b. 한국학의 선구자 모리스 꾸랑 (下). 『동방학지』, 52: 83-121.

[19] Ceadel, E. B. 1953. "Far Eastern Collections in libraries in Great Britain, France, Holland and Germany." *Miscellaneous Communications*, 213-222. [online]. [cited 2011.10.13]. 〈http://www.ihp.sinica.edu.tw/~asiamajor/pdf/1953/1953-213.pdf〉.

[20] Courant, Maurice. 1894-1896. *Bibliographie Coréenne*. Paris: Ernest Leroux.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1] Kang, Soon-Ae. 2008. "The construction and common use of old document DB in the foreign count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2(3): 61-79.

[2]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07. *The Catalogue of Korean Bibliographical Materials in Overseas: The National Librar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Daejeo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3] Kim, Bong Hee. 1990. "The commemorative essays for professor Wondang Shim Woo Choon upon his retirement: A study of Catholicisme in Maurice Courant's Bibliographie Coreenn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Bibliography*, 5: 87-125.

[4] Kim, Jeong Ha. 2004. *Study of the Efficient Information Organization of the Rare Book*. M.A.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5] Park, Byung Sun. 1985. *Ugue in the Joseon Dynasty*. Seongna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6] Park, Sang-Guk. 2003a. "Haeoe Jeonjeog Josawa France Josa." *Munhwajae*, 36: 379-386.

[7] Park, Sang-Guk. 2003b. "A study on the collection of Korean old books in Europe."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DaeDong-Hanmun*, 18: 91-123.

[8] Li, Jin-Mieng. 2003. "The actual condition of Korean study data owned by French National Library and French National Institut of Oriental Languages & Civilizations and the trend of study." *Korean Studies*, 2: 183-221.

[9] Lee, Hee Jae. 1988. "A study on Maurice Courant and Korean bibliograph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Nonmunjip*, 28: 325-364.

[10] Lee, Hee Jae. 1994a. "La caracteristique et la signification de tout domaine de la Collection de l'INLCO a Paris." *Journal of the Institute of Bibliography*, 10: 237-274.

[11] Lee, Hee Jae. 1994b. *Bibliographie Coreenne*. Written by Maurice Courant. Translation rev. ed. Seoul: Iljogak.

[12] Lee, Hee Jae. 2005. "A study on model case of ideal digitization of Korean Ancient Book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2(1): 105-123.

[13] Lee, Hee Jae. 2009. "Jaebul Hanguk Goseoui Hyeonhwanggwa Baljeon Banghyang." *Gukoe Sojae Hanguk Gomunheon Sujip Seonggwawa Gwaje*. Seoul: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14] Lee, Hye Eun. 2007. "Korean rare books digitization project in Harvard-Yenching Library." *Seojihakbo*, 31: 283-299.

[15] Lee, Hye Eun. 2010. "Guklib Jungang Doseogwan Gomunheon Sujip Saeobui Seonggwawa Gwaje." *Gukoe Sojae Hanguk Gomunheon Sujip Seonggwawa Gwaje*. Rev. ed. Seoul: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16] 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2006. *Souveniers de Seoul*. Seoul: 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17] Bouchez, Daniel. 1986a. "A pioneer in Korean Studies, Maurice Courant(1865~1935) (1)."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51: 153-194.

[18] Bouchez, Daniel. 1986b. "A pioneer in Korean Studies, Maurice Courant(1865~1935) (2)."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52: 83-121.